

창세기(24)

주님께서는 성경은 나에게 관해 증거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성경이 뭘니까? 구약성경입니다. 특별히 모세 5 경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모세 5 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들이 쪽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보는 것입니다. 최초 생명이 물에서 나왔고 다섯째 날에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3 장 15 절에 있는 여자의 씨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전에 선포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

창세기 3 장 11 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기 위하여 새벽을 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달음 속에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며 함께 동참케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물론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한 아내가 주기에 내가 먹었다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브에게로 가셨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자 뱀의 꼬임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곧 바로 뱀에게 가셨어요. 뱀에게는 너는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원래부터 죄를 진 놈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탄은 땅의 에덴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오기 전에 하늘을 더럽혔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8 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너는 네가 창조된 날들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하므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나를 멀하리라. 네 마음이 네 아름다움으로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너의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으로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 불을 지나가게 하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며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네가’ 이것을 투로왕이라 했지요? 사탄도 이 세상의 종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고 사탄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를 말할 때 정사는 사탄의 역사 중에서도 정치를 주관하는 그러한 마귀를 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시아군이 나를 막았는데 우리 군장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왔다고 다니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다. 페르시아군을 대표하는 정사 마귀가 공중에서 미카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투로왕이 왜 마귀인가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에덴동산에서 창세기 3 장에서 일어난 사건 즉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오늘 짧은 시간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사탄 때문에 이 덮는 그룹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늘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럽혀진 왕국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도,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주님 자신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심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김질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 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 장 17 절과 더불어 15 절 말씀과 관련 지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이 왕국에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결국 나중에 깨닫고 요한일서 3 장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3 장 8 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여인의 씨가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요.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에덴동산과 하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도 더럽히고 이 땅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하늘도 더럽히더니 땅도 더럽혔느냐?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마귀는 이미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범죄했던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결국은 이렇게 하여서 여인의 씨가 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손상된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일단 죽으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뭘니까? 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심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최초로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꾸는 일 즉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고 사탄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킹덤,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입니다.

우리 한 번 히브리서 2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천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으니까 신나게 좀 살다 가자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는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2 장 9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예수를 보리니.”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조금 낮아졌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그러나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사탄의 영을 대적하고, 그 안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즉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즉 여인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택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2 장 12 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작은 그리스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사탄이 꼼짝을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며 내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과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몰아내는 일을 한 십자가의 군병들에게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참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제가 전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세상에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아,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 킹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왜냐? 깨달아지니까. 에텐동산에서 사탄에게 말씀한 것이 깨달아지고 왜 그런 건지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간증했지만 한국이 독립할 때 어부지리 한 것 아닙니까?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독립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고 일본을 멸망시키려다 보니 즉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의 종이었던 한국이 자동적으로 독립이 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멸하고 우리도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으로 하셨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미국이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진주만을 폭격했으니 미국의 망신이었죠. 그래서 원수를 갚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존재 덮는 그룹인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늘에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실 때 그것이 깨어져서 불뭇에 던져질 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아우 제(弟)에다 아들 자(子)입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중국인이 쓰는 한자의 뜻도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는 disciple 이고, 제자 아우 제 아들 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 희한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자에도 이렇게 뜻을 두셨구나 했어요.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된 것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히브리서 2 장 13 절,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들, 옛날 일본 아래 한국이 속박되어 있었던 것처럼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죠. 마귀를 멸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 둘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언약신약이 자기구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구원만 치중하는 거예요. 구원에만 치중하고 나머지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구원파라는 박옥수 목사도 구원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리의 지식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니까 못하지 전도하는 목적을 가르쳐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야지만 훈장을 받지 사실 전쟁이 없을 때의 군인은 별 볼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군인은 빛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들이 아직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마귀가 원수가 된 것처럼 우리와 마귀도 원수가 되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 장 15 절을 보겠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도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증거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지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만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 받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아! 아무 염려 없구나. 내가 어디든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탄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니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목사님 그곳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대답하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귀들이 우글거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삽니다. 이곳이 편할 것 같아도 주님이 거기 가시고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용감한 미국 목사님도 있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미 멸하셨으니까, 이미 멸하신 것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요. 이제 죄를 없애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믿음으로 그것을 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깨닫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유식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소극적으로 아~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만 말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잘된다.’라고 비웃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말 같이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복음에 관하여 그대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복음에 역사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